

호르무즈 해협에 관한 전문가 의견 및 시사점

* 본 문서는 한국해양전략연구소가 2026년 4월 14일 실시한 웨비나에서 개진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하여 정책제언 보고서의 형태로 요약한 자료입니다.

□ 개 요

최근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은 단순한 지역 분쟁을 넘어 글로벌 해양 질서, 에너지 안보, 그리고 동맹 구조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전통적 해군력의 역할 변화, 비대칭 위협의 부상, 동맹 체계의 재편, 그리고 미·중 전략 경쟁의 장기적 방향성 등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 전략적 환경과 위기의 본질

1. 전략 목표의 불명확성과 정책 불일치

-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행동은 명확한 전략적 목표 없이 수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 핵 프로그램 제거, 정권 교체, 해협 재개방 등 다양한 목표가 혼재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정책 일관성과 작전 통제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 이스라엘은 독자적 전략 행위자로서 행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미국은 동맹국의 행동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해되고 있다.
- 이러한 상황은 동맹 내부의 권력 비대칭과 전략적 불일치(미국과 이스라엘 간 전략적 조율 부족)를 동시에 드러내는 사례로 평가된다.

2. 글로벌 해상 초크포인트 경쟁

- 호르무즈 해협은 말라카 해협, 수에즈 운하, 대만 해협, 파나마 운하 등과 함께 핵심 해상 초크포인트로 간주된다.
- 이러한 초크포인트는 단순한 해상 교통로를 넘어 국제 정치·경제 질서를 형성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기능한다.
- 이번 위기는 초크포인트 통제 경쟁이 단순한 군사적 충돌을 넘어 "영향력 경쟁"의 형태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바둑 전략에 비유하며, 주요 강대국들이 전 세계 주요 해상 거점에 대한 영향력을 두고 경쟁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3. 해양 안보와 글로벌 공공재의 위기

- 해양은 글로벌 공공재(global commons)로서 자유로운 항행과 교역을 보장하는 공간이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이러한 질서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준다.
- 해협 봉쇄는 에너지는 물론 식량 및 비료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치며, 글로벌 경제에

구조적 충격을 유발한다.

- 실제로 공급망 불안은 화학 및 비료 시장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식량 안보 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4. 해군력과 비대칭 위협

○ 전통적 해군력의 한계

- 우크라이나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사태는 전통적 해군력의 효용성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한다.
- 우크라이나는 해군 없이도 무인체계를 활용하여 흑해에서 해상 우세를 확보하였으며, 이란 역시 정규 해군 없이 기뢰를 이용하여 해역을 전략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 이는 항공모함 중심의 전통적 해양력 개념이 제한된 해역 및 비대칭 전력이 투입되는 환경에서는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 기뢰전의 전략적 부상

- 기뢰는 저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발휘하는 대표적 비대칭 무기이다.
- 기뢰가 호르무즈 해협 해협 봉쇄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시간과 자원이 소요된다.
- 기뢰 제거에는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이는 단기적 군사 대응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반영한다.
- 서방국가들은 기뢰 대응 능력(Mine Countermeasures, MCM)에 충분한 투자를 하지 않은 상황이며, 이는 해양 안보의 주요 취약점으로 지적된다.

○ 기술 변화와 해전의 미래 양상

- 무인체계, 인공지능, 자율 플랫폼 중심으로 해전의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
- 미국은 무인 수상정(Global Autonomous Reconnaissance Craft, GARC)을 활용하여 정보수집, 기뢰 대응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 미래의 해전은 고비용 플랫폼 중심에서 저비용·분산형 체계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5. 동맹 구조의 변화

○ 동맹국 간의 신뢰

- 미국은 이란을 공격하기에 앞서 동맹국들과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으며, 이는 동맹국의 참여 의지를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 한국, 일본, 유럽(NATO) 국가들이 군사적 참여를 자제한 것은 단순한 능력 부족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의 결과로 해석된다.
- 금번 이란 사태는 동맹 운영 방식의 중요한 한계를 드러냈다

○ 동맹의 '이익 기반화'

- 동맹은 과거의 자동적 군사 협력 체계에서 벗어나, 국가별 이익에 기반한 선택적 참여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 주요 요인으로는 ① 해상 교통로 의존에 따른 경제적 부담, ② 기뢰 대응 능력 부족, ③ 한반도 안보 환경(북한 위협), ④ 국내 정치적 제약 등이 있다.

○ 산업·기술 동맹의 부상

- 동맹은 군사 영역을 넘어 산업 및 기술 협력으로 확장되고 있다.
- 특히 방산 산업은 동맹 내 상호 의존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경쟁을 유발하는 이중적 성격을 가진다.
- 한국의 방산 수출 확대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6. 주요 국가별 대응

○ 한국

- 한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군사적 개입에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주요 요인으로는 ① 해상 교통로 의존에 따른 경제적 부담, ② 기뢰 대응 능력 부족 한반도 안보 환경(북한 위협), ③ 국내 정치적 제약 등이 있다.
- 특히 기뢰 대응 능력 부족은 실질적인 군사 참여를 제한하는 핵심 요인이다.

○ 중국

- 중국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높은 에너지 의존도를 보이면서도 직접적인 군사 개입은 자제하고 있다.
- 이는 ① 해상 통제 능력 부족, ② 중동 분쟁 개입에 따른 정치적 위험, ③ 미국과의 전략 경쟁 관리 필요성 등에 기인한다.
- 결과적으로 중국은 군사력보다는 경제·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통한 장기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 미국

- 미국은 여전히 해양 안보의 핵심 제공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단독으로 글로벌 해양 질서를 유지하기에는 역량이 제한되고 있다.
- 특히 동맹과의 협력 부족은 전략적 효과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7. 종합 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 해양 안보의 구조적 중요성 강화 : 호르무즈 해협 위기는 해양 안보가 글로벌 경제 안정의 핵심 요소임을 재확인시켰으며, 특히 초크포인트 통제력은 국가 전략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 비대칭 위협 대응 역량 강화 필요 : 기뢰 등 비대칭 위협은 기존 군사력 우위를 무력화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기술적·작전적 대응 능력 확보가 시급하다.
- 동맹 운영 방식의 재정립 : 동맹은 사전 협의, 신뢰, 공동 이익을 기반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으며, 일방적 행동은 동맹 결속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 산업·기술 기반 안보 협력 확대 : 방산 및 기술 협력은 향후 동맹의 핵심 축으로 기능

할 것이며, 이를 통한 전략적 자율성과 협력의 균형이 중요하다.

- 미·중 경쟁의 장기화 : 미·중 경쟁은 군사적 충돌보다는 경제적·정치적 수단을 중심으로 장기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으며, 중견국의 전략적 선택이 중요해질 것이다.
- 다중 위기 대응 전략 필요 : 중동, 대만, 한반도 등에서 동시다발적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적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 결 론

호르무즈 해협 위기는 단순한 지역 분쟁을 넘어 현대 국제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이며, 특히 해양 안보의 중요성, 비대칭 위협의 부상, 동맹 구조의 변화, 미·중 경쟁의 심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새로운 전략 환경이 형성되고 있다.

향후 각국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력뿐 아니라 경제, 기술, 외교를 통합한 종합적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